

남한 영화로 북한 보기

-분단영화로 알아보는 시기별 대북의식 변화-

2019-14329

장수민 지음



지은이 장수민

펴낸이 장수민

펴낸곳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출판신고 2020년 06월16일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6동 사회과학대학

홈페이지 www.anthropology.or.kr

문의 stella4467@snu.ac.kr

ISBN 978-89-12345-67-8 (09876)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남한 영화로 북한 보기

-분단영화로 알아보는 시기별 대북의식 변화-

2019-14329
장수민 지음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차례

00. 들어가며

-분단영화란?

01. 반공영화의 대유행(휴전 이후-1980년대)

-<뚝이 장군: 제 3 땅굴 편>(1978)

02. 북한 사람들도 '인간'이다(1990년대-2000년대 초반)

-<공동경비구역 JSA>(2000)

03. 코믹한 간첩 뒤 부정적인 북한(2000년대 중반-2010년대 중반)

-<의형제>(2009)

04. 북한에서 사는 인민군과 사랑에 빠지다(현재)

-<사랑의 불시착>(2020)

05. 마무리

참고문헌

00. 들어가며

최근 tvn에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유명한 남녀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복잡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한 '북한'과 '군인'이라는 소재가 드라마의 인기 요인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북한을 극 중 배경으로 설정해, 남한 배경의 극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돈주의 생활, 장마당 등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여과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북한을 그려내는 방식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느꼈다.

나는 북한을 재현하는 미디어 중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지금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인식과,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성격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영화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그

속의 정보를 전파하는 데 쉽고 빠른 매체이며,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영화의 작가, 감독 역시 본인이 살고 있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그들은 생각하는 바를 고스란히 영화에 투영한다. 영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영화에 당대의 권력관계나 시대정신이 포함될 수도 있고 이는 많은 대중에게 비교적 쉽게 전달된다. 이렇게 영화가 계속해서 사회와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프랑스의 영화감독 장뤽 고다르(Jean Luc Godard, 1930-)는 20세기가 영화 없이 사유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회를 보는 눈으로써 영화의 역할을 강조했다(한주희 2017: 1092-1093).

이러한 영화의 보편적 특성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처한 특수 상황이 북한 재현 영화, 드라마의 중요성을 키웠다. 일찍부터 북한은 남한에 제일 가까이 위치한 나라이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다. 북한이 직접 공개하는 소식이나 선전물, 북한 관련 뉴스와 정부의 발표 자료,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정도에서 북한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을 뿐이다. 비록 날 것의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북한을 담아내는 미디어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통로인 것이다.

분단영화란?

이 책에서는 이제부터 북한을 재현하는, 담아내는 영화를 '분단영화'로 칭하겠다. 분단영화는 한국영화의 한 장르로 말 그대로 '분단'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분단영화는 '한국영화의 영원한 흥행카드'¹⁾라고 불릴

1) 『네이버 포스트』, "한국영화의 영원한 흥행카드 '분단',"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023926>

만큼 흥행하는 영화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다. 실제로 <베를린>(2013), <강철비>(2017), <공작>(2018), <백두산>(2019) 등 최근 흥행한 영화 중 상당수가 분단영화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분단영화 중 다수가 흥행하는 이유는 분단이라는 상황이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북한은 우리 중 누구도 가 본 적이 없고,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나라라는 점에서 신선함을 주기 때문이다.

본 책은 앞서 분단영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분단영화를 분석하기 위해 시기를 휴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시간을 '휴전 이후-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중반', '현재' 이렇게 4개로 나누었다. 정부의 대북정책관이 큰 틀에서 바뀌는 부분과 영화 속에 묘사된 북한의 특징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시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 나는 각 시기별로 해당 시기에 남북관계와 대북 정책의 성격을 간단히 살펴본 후, 당시 개봉한 분단영화의 흐름을 보았다. 그 중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 작품을 대표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했다. 분석 지점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시기별 분단영화에서 북한 및 북한 사람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 ② 분단영화 속 북한 재현의 변화는 당시 사람과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 ③ 영화가 강조하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함께 남한 영화로 북한을 보러 가보자!

01. 반공영화의 대유행

(휴전 이후-1980년대)

반공(反共)은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의미이고,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정치 이념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반공주의는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중요한 이념으로 작용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전 국민이 반공의식을 갖게 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부터이다. 전쟁 이후 당시 지배층은 혼란한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반공 문화를 활용했다(장연이 2009: 110-111).

1960년대 이전 반공 영화는 공산주의와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측면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비극성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한 예시로, 이강천 감독의 <피아골>(1955)은 휴전 이후 지리산에서 활동하던 빨치산의 갈등을 그린 영화이다. 등장인물 중에는 빨치산으로 활동하다가 공산주의 이념에 회의를 느낀 사람도 있고, 여자 동료 를 겁탈하고 다른 동료에게 누명을 씌워 살해하는 사람도 있다. 영화는 공산주의 자체를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피하고, 오히려 공산당의 빨치산 부대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른 예시로, 1959년에 개봉한 김묵 감독의 <나는 고발한다>는 한국 전쟁에서 북한으로 끌려간 남한 포로의 북한 탈출기이다. 북한 강제 수용소의 비인간성과 열악한 환경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피아골>보다 수위가 센 반공 이념을 드러내고 있지만, 영화의 주요 축이 남녀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이후 1960년대에 등장하는 반공 영화보다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매개로 반공 의식과 남북관계를 이용하면서 반공 영화에 변화가 나타났다. 5.16 군사 정변 이후 박정희 정권의 군사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혁명공약 제 1항에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고 언급되어있다. 당시 남한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북한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체제 재정비와 경제력 극복의 측면에서 북한 적대 의식을 강화하고자 했다. 1970년대 남한은 발전하고 있는 경제력에 자신감을 나타내며 북한에 여러 협상을 제안하고 7.4 남북 공동 선언을 이끌어내었다(변창구 2011: 9).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화해 모색에도 불구하고 3개의 땅굴 발견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³⁾ 등으로 지속적인 안보 불안을 느낀 박정희 정권은 여전히 반공 의식을 강조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반공 영화를 제작했고 영화 검열도 심화하였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강력한 반공의식을 심기 위해 어린이 TV 프로그램이나 무료 영화로 정부에서 직접 제작한 반공 영화를 방영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반공 영화는 일반 영화에 비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훨씬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반공 애니메이션영화 <똥이 장군: 제 3 땅굴 편>(1978)을 함께 분석해보자.

2) 『씨네 21』, “[북한영화⑤] 한국영화 속 북한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는가, 휴전 직후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0500 (2020.06.04. 접속)

3) 1976년 8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들이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죽인 사건이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똥이 장군: 제 3 땅굴 편>(1978)

이 애니메이션의 배경은 북한이다. 북한 소녀인 숙이의 가족을 비롯한 북한 사람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심한 노동력 착취와 반인륜적인 취급을 받고 있다. 이들이 힘들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똥이 장군이다. 똥이 장군은 동물 친구들과 함께 북한 지배계급을 무찌르는 영웅의 역할을 한다. 반대로 북한의 지배계급은 모두 항상 악행을 저지르는 악당으로만 나온다.



[그림 1] '나는 공산당을 고발한다'는 <똥이 장군>의 자막
(출처: 유튜브 봄밤푸른별)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되기 전 큰 화면 전체에 두 번의 자막이 나온다.

본 만화영화는 대한반공청년회의 협찬으로 제작된 어린이들이 꼭 봐야 할 반공만화영화로서 제작 과정의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린이 어려

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었음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는 공산당을 고발한다. <똥이 장군 제 3 땅굴 편>(1978)

'반공'과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있고, 자막의 배경은 '빨갱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검붉은 색이다. 반공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꼭 봐야 하는 학습 자료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공산당을 어떤 잘못을 해서 '고발'당해야 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자막이다.



[그림 2] <똥이 장군> 중 붉은 돼지의 모습을 한 북한의 붉은 수령 김일성 (출처: 유튜브 봄밤푸른별)

북한군과 수령의 재현 양식

영화가 그린 북한 지배층의 모습은 모두 험악하고 사납다. 영화에서 '붉은 수령'으로 언급되는 김일성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고 똥똥하고 식탐 많은 돼지이다. 돼지는 붉은 수령이라는 이름과 공산당을 연상하는 단어인 '빨갱이'를 적용한 빨간색이다. 북한 인민들을 직접 괴롭

히는 행동대장은 붉은 여우이다. 붉은 여우는 날카로운 눈초리와 손톱을 가지고 있고 가슴에 빨간 별을 달고 있다. 또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하다. 늑대는 가장 말단 계급으로 붉은 여우 밑에서 여우의 명령을 행동에 옮긴다. 행동이 굼뜨고 총을 들고 있다.

북한군과 수령을 나쁜 인상으로 그려낸 것과 더불어 이들을 동물로 취급한 것 또한 그들의 '악함'을 강조하는 수단이 되었다. 어려운 북한 인민들을 구출하는 쫓이 장군, 핍박받는 숙이를 비롯한 북한 인민들은 모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북한 악당은 각각 돼지, 여우, 늑대로 동물의 모습이다. 이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 쫓이 장군을 도와주는 동물들은 사슴, 다람쥐 등 선한 인상을 가진 것에 반해, 북한의 동물들은 늑대, 여우와 같이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거나 똥똥한 돼지이다.

가난하고 핍박받는 북한 인민과 잘 사는 남한

(붉은 여우) 며칠 후면 경애하는 붉은 수령님의 아들 김정일 동지의 생일이다. 산삼 50뿌리를 캐서 생일 선물로 바쳐야 한다. <쫓이 장군 제 3 땅굴 편>(1978)

붉은 여우의 이 대사 후, 한 여성이 붉은 수령을 위해서 산삼을 캐러 갔던 사람 중 17명이 추락사하였다고 말했지만 붉은 여우는 개의치 않아 했다. 오히려 산삼 세 뿌리를 더 캐오지 않으면 퇴학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영화는 이렇게 국가 원수의 생일을 위해서 국민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설정을 통해 국민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

는 이기적인 북한 수령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했다.

(탁아소의 아이들)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늑대) 정신 상태가 돼먹지 않았어. 붉은 수령 동지께서 배고픔을 참으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누구지?

(아이들) 붉은 수령입니다.

(늑대) 지금 입은 옷은 누가 주었지?

(아이들) 붉은 수령입니다.

(늑대) 싸워라. 그래야 붉은 혁명 사상이 싹트지.

<뚝이 장군 제 3 땅굴 편>(1978)

이후 대사에 따르면 북한의 아이들은이 모두 탁아소에 맡겨지면 15일은 탁아소에 있고 1일만 집에 갈 수 있다. 단체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참다운 혁명 사상을 익힐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시달리며 엄마를 부르고 있지만, 늑대는 이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추위와 배고픔조차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수령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라는 늑대의 말은 영화의 수용자로 하여금 분노를 일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이 인민,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으면서 수령에게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인 것이다.

*(박쥐) 동무들이 더러는 죽고 더러는 잡혔습니다. 남한이 평화스러운 곳
이라 하여 그만 자수를 해서 남한의 품으로..*

(붉은 수령) 남한이 잘사는 게 배가 아프단 말이다!!!

<뚝이 장군 제 3 땅굴 편>(1978)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몰래 남한으로 보내진 북한의 간첩 박쥐들 중 일부가 남한의 좋은 환경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수를 했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붉은 수령의 말을 통해서 남한은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이며 북한이 이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이외에도 인민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반찬 투정을 하는 붉은 수령, 붉은 수령이 던져 바닥에 떨어진 닭고기를 먹기 위해 여우들이 싸우는 모습, 뚝이 장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여우와 늑대는 북한의 무식함과 우매함, 빈곤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행동들이다. 북한 인민을 불쌍하게, 지배층을 탐욕스러운 악마처럼 묘사하여 이를 보는 남한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게 한다. 북한을 자유롭게 언급조차 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을 참작했을 때, 이 영화를 접한 남한의 관람객들은 북한이 영화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국민의 반공 의식 확대와 연결된다. 또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영화는 북한을 다소 과장되게 묘사하고 내용을 감정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02. 북한 사람들도 '인간'이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앞서 살펴본 시기의 분단영화가 국민의 반공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반공 영화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면, 1990년대부터 서서히 분단영화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민주화 이후 등장한 문민정부는 관여정책을 대북정책으로 채택했다. '햇볕정책'으로 널리 알려진 관여정책(engagement)은 적극적인 교류와 다방면에서의 접촉 확대 및 관계 개선으로 상대 국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전 정권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햇볕정책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초기 문민정부는 높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자율성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기댈 곳이 없었던 북한은 었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사상 최악의 기아 사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여러 곳에서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이 등장하고 있었기에, 당시 정부는 대북정책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다(이화준·노미진 2019: 35-36). 햇볕정책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고, 과거와 비교해볼 때 북한의 대남 비난은 횡수가 줄고 수위가 낮아졌다. 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은 각각 남북정상회담으로 만나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한반도에는 잠시나마 평화의 바람이 부는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햇볕정책은 북

한의 핵실험과 서해 도발 등으로 인해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 정부는 비판을 줄이고 대북정책을 견지해나가기 위해 국민의 우호적인 대북인식을 형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분단영화의 흐름을 살펴보자. 강제규 감독의 영화<쉬리>(1998)와 장진 감독의 <간첩 리철진>(1999)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벗겨내고 '북한'과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이전 반공 영화가 북한을 다룰 때는 북한을 적, 악마로 묘사했지만 이 시기 영화들은 북한을 소재로만 사용할 뿐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쉬리>는 분단 현실에 입각해 남북첩보전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악당 북한과 영웅 남한의 이데올로기적 싸움이 재미요소로 기능하지 않는다. 다만, 서울이라는 친숙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첩보물이라는 점(변재란 2001: 250-251)과 남한 특수요원(한석규 배우)과 남파 간첩(김윤진 배우)의 사랑이 흥행 요인이 되었다. 또 다른 당대 분단영화인 <간첩 리철진>은 그동안 우리가 무섭고 냉혈한 존재로 느꼈던 간첩을 코믹하게 연출했다. 심지어 간첩이 남파된 이유는 누군가를 암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북한의 기아 상황을 해결할 유전자 샘플을 가져가기 위해서이다. 간첩 리철진은 이념에 의해 움직이는 인물이 아닌, 인간적인 본능(배고픔)을 따라 움직이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기존 분단영화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제부터는 전국 57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햇볕정책 시기의 또 다른 흥행작 <공동경비구역 JSA>(2000)을 분석하며 북한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공동경비구역 JSA>(2000)

(표 장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 빨갱이 그리고 빨갱이들의 적. 중립 따위는 없고 선택만 있을 뿐. <공동경비구역 JSA>(2000)

이 영화는 비무장지대 안 북한군 초소에서 일어난 총성 사건의 진실을 밝혀가는 구조이다. 비무장지대에서 우연히 지뢰를 밟은 남한 병사 수혁과 그를 구해준 북한군 경필은 분단을 뛰어넘어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가 된다. 남한군 성식과 북한군 우진 또한 이들과 어울려 북한 초소에서 매일 밤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이 초소에서 남북한 군인이 어울려 노는 것을 다른 북한군에게 들켜자, 우발적으로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결국 북한군 2명이 죽는다. 이후 조사 과정을 버티지 못한 남한군 2명 역시 자살을 선택한다. 위의 대사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중립국 스위스에서 파견된 소피 장에게 표 장군이 의미심장하게 던지는 말이다. 영화의 극 초반에 등장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가 북한에, 분단 상황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제시해준다.

총을 든 모습이 더 어색한 북한 군인

(경필) 울기는 다 큰 새끼가 이게. 그만 가자요.

(경필이 수혁에게) 자 받으라, 선물이야. 거 몸조심하라.

(경필이 우진에게) 야 너 이새끼 그렇게 살지 마라. 거 혼자만 살겠다고

<공동경비구역 JSA>(2000)

위는 북한군 경필과 우진, 남한군 수혁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에서 오고 간 대화이다. 처음 풀밭을 헤치다가 만난 경필, 우진, 수혁은 뒤늦

게 부랴부랴 총을 든다. 풀숲에서 그들은 모두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렸고 총을 겨누는 모습도 굉장히 어수룩하다.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기계 같은 인민군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또 경필은 수혁을 두고 그냥 가자고 했던 우진에게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지 말라는 충고를 한다. 이는 경필이 수혁을 '남한군', '적'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봤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그림 3] <공동경비구역 JSA>중 남북한 군인이 허물없이 닭싸움을 하고 있다. (출처: Netflix)

영화는 남한군이 북한군 초소에 놀러 가서 보내는 시간을 보여주는 데에 할애한다. 넷은 탄약으로 공기놀이를 하고, 닭싸움을 하고, 서로의 여자친구 사진을 공유하고, 형이라는 친근한 호칭을 사용한다. 넷 중 둘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근무를 서는 날에는 마주 보고 침뱉기 놀이를 하기도 하며, 그들은 남한과 북한의 군인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아는 형, 동생으로 친밀함과 신뢰, 형제애를 쌓아간다. 또 경필은 '미제', '초코파이' 등 북한에서는 반동 소재로 여겨지는 이야기거리도 스스럼없이 하

며 북한 군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수혁) 형 저번에 정말로 밀고 내려 오려고 했던 거야?

(경필) 고저 난들 알겠니? 뭐, 양키놈들이 내려온다는데 우리도 앉아서 당할 수 없지 않았어?

(수혁) 그러니까 핵무기니 미사일이니 안 만들면 되잖아요.

(경필) 그걸 내가 만드니?

(수혁) 정말로 전쟁 나면 우리도 서로 싸야 돼? <공동경비구역 JSA>(2000)

이것은 영화가 의도한 바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사이다. 북한이 공격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남북한 모두가 전쟁 태세에 들어갔다가 상황이 종결된 후, 수혁, 경필, 우진, 성식은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넷이 초소에서 친구처럼 지낼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고 넷은 몹시 당황했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개인적 친분, 인간 대 인간의 관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적이 되어야만 하는 운명이었다. 경필은 북한이 핵무기를 왜 만드는지 모르고, 수혁은 전쟁이 나면 북한군을 정말 싸야 하는지에 확신도 없지만 말이다. 남한에는 “북측 판문점 초소에 있는 군인들은 남한의 군인들을 월북시키려고 근무 서는 적공조”라는 소식이 돌고, 수혁과 성식은 밤에 같이 놀던 북한군을 낮에는 모형으로 세워놓고 총을 쏘는 훈련에 임해야 했다. 영화는 이처럼 네 명의 병사가 형성한 친구 관계를 방해하는 현실적인 요인을 계속 만들어, 등장인물과 영화의 관람객에게 비극적인 분단 상황을 상기시킨다.

이 영화는 북한을 휴머니즘적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으며, 북한 이념

의 집약체라고 불렸던 북한의 군인조차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보여준다. 특히, 배우 송강호가 연기하는 오경필 중사는 너무 친근한 이미지여서 관람객에게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이전 챕터에서 북한 군인을 여우, 늑대와 같은 사나운 동물로 표현한 것과는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군인이 인간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초소를 방문해 총성 사건의 방아쇠가 되었던 인민군은 휴머니즘적 면모 없이 상부의 지시에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로 인해 경필과 우진의 인간다운 모습이 더욱 돋보이는 반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영화는 같은 인간이지만 적이 되어야 하는 현실 분단 상황을 계속 제시하며 관람객으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유발한다. 한편, <공동경비구역 JSA>는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북한군을 미화하는 영화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⁴⁾. 이렇게 남북이 처한 분단 상황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낭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지만, 이전 반공 영화에서 크게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4) <공동경비구역 JSA>는 북한군을 미화하고, 상상 장면이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18세 이상가'로 등급 분류되었던 적이 있다. (출처: 『한국일보』, “공동경비구역’ 15세 관람가로 재분류,” 2000.08.31.일자.)

03. 코믹한 간첩 뒤 부정적인 북한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중반)

기존 햇볕정책이 서서히 한계를 노출하자, 이명박 정부는 다른 대북 정책을 취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무조건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한다면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선(先)비핵화 후(後)지원'을 주요 노선으로 삼았다. 대북지원에 조건을 달았다는 점에서 햇볕정책보다는 강경한 전략이 되었으나, 반공 이념처럼 북한을 적으로 삼거나 고립시키는 정책은 아니었다(이화준·노미진 2019: 39-40). 그러나 연평도 포격사건(2010), 천안함 폭침 사태(2010)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자 이명박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남한은 북한을 협력 대상에서 경쟁 대상으로 다시 바꾸어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 대박론을 내세워 남북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완성한 후 이를 통일까지 연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국가안보실 2014: 57-62). 그러나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은 북한 고립 봉쇄 정책에 가까웠다. 남북한의 거의 유일한 교류 통로였던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남북간 뚜렷한 대화의 노력 없이 남한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시기에 제작된 분단영화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 영

화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주연급 남자 배우들이 북한의 군인이나 간첩 역할을 맡았고, 대부분의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베를린>(2012)에서는 하정우,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에서는 김수현, <용의자>(2013)에서는 공유, <공조>(2017)에서는 현빈이 각각 북한인 역을 맡았다. 주인공 간첩은 코믹하게 그려지거나 다른 간첩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과거 간첩물에서 간첩은 이념으로 무장하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남파된 인물이었지만, 이 시기 간첩물에서 간첩은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강성률 2018: 48-53).⁵⁾ 북한 사람을 같은 '인간'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 이전 햇볕 정책 시기 분단영화와 유사하나, 그 이면에서 북한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을 유발하는 기제를 이전보다 훨씬 강조한다. 유명 배우 강동원을 생계형 남파 간첩으로 내세운 영화 <의형제>를 분석해보며 이 시기 분단영화의 특징을 자세히 파악해보자!

5) 강성률(2018). 2010년 이후 영화의 북한 재현 양상 고찰. 씨네포럼(31), 43-68.

■ <의형제>(2009)

송지원(강동원 배우)은 그림자(전국환 배우)를 도와 김정일의 육촌 형인 김성학을 죽이기 위해 내려왔다. 두 남파 간첩이 김성학과 가족을 죽일 때, 이 둘을 체포하지 못한 국정원 요원 이한규(송강호 배우)는 지원을 잡기 위해 지원에게 거짓으로 흥신소 직원 자리를 제의한다. 같이 흥신소 일을 하며 한규와 지원은 점점 가까워지는데, 한규는 지원이 접촉한 목사로부터 지원에게 복에 놔두고 온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편 지원은 귀순 교수를 살해하는 그림자의 계획에 동참하지만 교수를 살해하는 것이 당의 지시가 아닌 그림자의 개인적인 지시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림자는 비밀을 알아버린 지원과 같이 옥상에서 뛰어 내리지만, 지원은 한규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는다. 이후 지원은 복에 있던 가족과 영국에 정착한다.

(지원) 김성학만 처리하면 되는데.....

(그림자) 나약한 놈. <의형제>(2009)

그림자는 송지원보다 연륜도 있고 지위도 높고 사상도 투철한 간첩이다. 그는 김성학의 집에 들어가 아내와 장모를 죽이고 타깃이었던 김성학까지 죽인다. 지원은 그림자가 김성학에게 총을 쏘 때 김성학 아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 후 그림자가 지시대로 김성학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자 지원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 성학의 아들은 아직 어린 아이이고 잘못된 것이 없으니 차마 죽일 수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러자 그림자는 망설이는 지원에게 나약하다고 충고했다. 여기서 그림자는 북한 당국의 지시를 절대 거스르지 않는 북한 당국을 대변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반면, 그림자와 의견 충돌을 보이는 지원은 북한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북한 인민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영화는 앞 챕터의 <공동경비구역 JSA>와 같이 북한 당국과 인민을 분리해서 생각했다.

불쌍한 간첩

(목사) 인준이는 북에 가족이 있어요. 아내와 딸이 있는데 못 본 자가 7년이 되간다 그렇디다. 인준이는 당국에서 배신 혐의를 받고 버려진 신세예요. 그러니 자수를 하려 그래도 북에 가족이 있으니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없는거지(...) 근데 거의 성사 직전에 핵문제가 터져버린거야. 그러니 국경 경계는 다시 강화되고... <의형제>(2009)

한규는 지원과 접촉하는 간첩단을 찾던 중 지원이 목사와 접촉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원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목사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다. 이 장면에서부터 지원은 무시무시하고 실력 좋은 간첩이 아니라 불쌍한 북한 인민이 되어버린다. 지원은 간첩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6년동안 당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고, 북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자수할 수 없으며 도망자 신세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짠한 캐릭터가 된다.



[그림 4] <의형제> 중 지원의 상황을 다 알고 그를 떠보는 한규 (출처: Netflix)

(경남) 형님, 지원이 신고하실 거예요?

(한규) 좀 기다려봐 인마, 가족들 데리고 나온대잖아. <의형제>(2009)

남파 간첩 지원을 손 안에 넣었다고 생각한 한규의 부하 경남은 한규에게 지원을 신고할 것이냐고 묻는다. 간첩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어마어마했지만, 한규는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보호하려 한다. 지원에게 복에 남은 가족이 있다는 말을 들은 한규가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지원을 바라본다.

이 영화가 관객에게 강조하는 감정은 한규가 지원에게 가졌던 동정심과 연민 의식이다. 얼핏 보면 이 시기 영화는 북한 인민을 당국과 분리하여 지원(남파 간첩)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앞 챕터에서 언급한 <공동경비구역 JSA>나 <쉬리>와 유사하다. 그러나 영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 당국은 더 부정적이게, 북한 인민

은 더 불쌍하게 만들었다. 당시 계속되던 북한의 무력 도발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 그림자라는 냉혈한 인물에 반영되었고, 북한 당국은 국민을 보호해주는 커녕 국민을 자꾸 궁지로 모는 모습으로 나타나, 영화는 북한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은근히 드러낸다. <의형제>에서 북한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그림자는 무자비하게 타깃의 아들까지 죽인다. 반면 북한 인민 지원은 본인과 가족의 생명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불쌍한 지원에게는 가족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이미지까지 씩씩 관객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했다. 이는 햇볕정책 시기의 분단영화가 북한 인민을 묘사한 방식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는 지점이다. 이 영화를 본 관객은 북한 사람을 북한으로부터 구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04. 북한에서 인민군과 사랑에 빠지다! (2017년 이후)

2017년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유한 대북정책을 채택했고, 남북간 교류도 훨씬 활발해졌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한 공동입장을 시작으로, 2018년 4월 27에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년 만에 회담을 성사시켰고, 같은 해 9월 18-20일에는 평양에서 다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완성된 남북합의문에 따라 남북한은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무장지대의 지뢰 철거 작업을 마쳤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제재 발언에 지지한다는 의견을 보내며 부분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이승현 2018: 166-168) 그러나 압박과 대화 중 대화를 훨씬 우위에 두고 관여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북한에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려 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북한을 정감 있고 아름답게 그려내어 북한 미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던⁶⁾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분석하며 북한을 이전 분단영화와 어떻게 다르게 묘사했는지 알아보자! 비록 분단'영화'는 아니지만 이 드라마 역시 남북한을 소재로 하고 있고 북한을 잘 재현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나는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6) 『한국경제』, “현빈·손예진 ‘사랑의 불시착’…‘북한 미화’ vs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야,“” 2019.12.16일자.

■ <사랑의 불시착>(2020)

16화 중 9개 화의 배경은 북한

이 드라마의 주된 이야기 즐기는 북한의 군인 리정혁과 남한의 재벌 2세 윤세리의 사랑이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북한에 떨어진 세리는 북한에서 탈출을 시도해 남한으로 돌아오고 이후 정혁은 남한으로 간 세리를 따라 남한에 넘어온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있어서는 안 될 공간에 있었던 남녀 주인공은 결국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같이 살 수 있게 된다. 분단의 뼈 아픈 현실을 온몸으로 겪는 두 사람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에 시청자들은 열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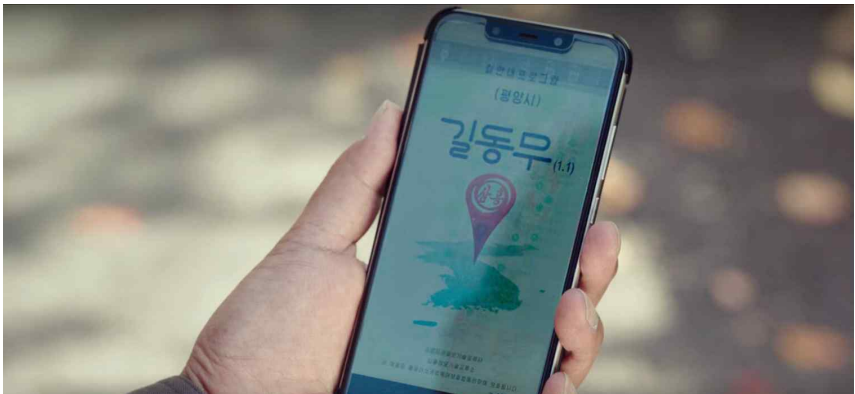


[그림 6] <사랑의 불시착> 7화 중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남녀 주인공 (출처: Netflix)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만나 우정을 쌓거나 사랑에 빠지는 플롯은 이전에도 꽤 있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북한'이라는 공간에서 이야기

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이전 미디어와 크게 차별화된다. 보통의 영화에서는 남으로 온 북한인(주로 간첩)과 남한인이 사랑하거나, 남과 북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던 도중에 국적이 다른 두 주인공이 끌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세리가 정혁이 있는 북한에 불시착 하면서 북한에서 그를 만나고, 무려 9화 동안 북한에서의 세리와 정혁의 모습이 방영되었다. 시청자들은 '사랑'이라는 거대한 감정에 매몰되어 배경인 북한을 아름답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동시에 드라마의 절반 이상이 북한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펼치다보니, 드라마는 자연스럽게 북한의 다양한 사회상을 보여주었다.

변화한 북한의 모습



[그림 5] <사랑의 불시착> 2화 중 평양 지도 어플리케이션 (출처:Netflix)

16부작 드라마 중 초반에 해당하는 2화에는 약 1분 가량 배우의 등장 없이 북한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북한에 온 것이 꿈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한 세리의 앞에 펼쳐질 북한 생활을 암시하는 듯

하다. 이 장면에서는 북한풍의 활기찬 노래와 함께 북한의 여러 풍경이 나오는데,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봐오던 북한과는 사뭇 다르다. 평양 대동강의 전경, 빨간 스카프를 매고 등교하는 아이들, 어디론가 전화를 하며 출근하는 남자, 세차게 뿜어져 나오는 분수, 주체 사상탑, 택시, 교통지도원의 근무 교대, 류경호텔, 기차역에 기차가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모습 등 가난하고 배고픈 북한이 아닌 평화롭고 잘사는 일상적인 북한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길동무'라고 하는 평양시 지도 어플리케이션이다.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⁷⁾."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드라마가 길동무 어플을 보여준 것은 북한 사람들이 전화 기능을 넘어 어플을 이용할 정도로까지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 되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낸다.

(단) 엄마 영어 배워? 미 제국주의 말이라고 기케 질색하더니?

(명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앞서 나가는 인민 아니겠니?

(명석) 지난번 어디 모임 갔다가 영어 몰라서 망신 한 번 당하고 나서 부터 저래야.

(명은) 야 글로벌 영업을 할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사랑의 불시착>(2020)

평양제일백화점의 사장인 명은과 그의 딸 단, 그의 동생 명석의 대화이다. 바로 이 전 장면에서 명은은 백화점에 쇼핑을 온 외국인 관광객과 반갑게 영어로 인사했다. 북한이 그토록 싫어하는 미 제국주의의 말인 영어를 명은은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글로벌 영업을 위해서는 꼭 필

7) 『한국일보』,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은 휴대폰 사용," 2020.02.13일자.

요하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 시스템을 지향하여 개인적인 상업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북한에서 사적인 돈을 버는 행위가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명은이 외국인 관광객과 대화한 점과 '글로벌' 영업을 언급한 것은 고립된 북한이 아닌 개방적인 북한을 보여 준다. 또 모임에서 다른 사람에게 끌리지 않기 위해 영어를 배웠다는 말을 보면 명은뿐만 아니라 많은 북한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은은 평양의 새로운 부유계급인 '돈주'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명은과 그의 딸 단을 통해 북한 부자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비춘다.

사람 냄새 나는 북한

(주먹) 오늘이 세리 동무 마지막 날이라 저희가 환송식을 준비했습니다.

(...) 표치수 동무가 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치수) 기래도 떠나는 마당이니 내 소원만은 들어달라. 잘 가라. 다치지 말고. 잘 살아라. 우리 잊지 말고. 만에 하나 들켜더라도 절대로 절대로 불디 마라. 내 이름만은.

(은동) 인차 세리 동무 가면 다시는 못 볼 텐데 노래 한 번 해주면 안 됩니까? <사랑의 불시착>(2020)

세리가 남으로 돌아가기 전날, 정혁의 부하인 5중대 부대원들과 세리가 들판으로 소풍을 가서 나누는 대화이다. 이 드라마에서 북한의 군인들은 굉장히 인간미 있게 묘사된다. 부대원들이 나이가 아직 어려 어수룩하게 표현되기도 하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거나 중대장인 정혁에게도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이 장면에서도 부대원들은 원칙적으로 만나서는 안 될 '남한 사람'인 세리를 만났지만 그녀와

정을 쌓고 장난도 치며 그녀가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 아쉬워한다. 북한 군인을 인간적으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공동경비구역 JSA>의 북한 재현 맥락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북한 군인뿐만 아니라 부녀자들도 소박하고 정감있게 그려진다. 사택 마을에 사는 4명의 아주머니는 세리의 북한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로 등장하는데, 그들 모두 북한에서 배고픔이나 가난 등의 문제 없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경영권 승계 문제로 세리가 남한에서 친오빠들과 겪는 갈등과 대비되는, 북한에서의 사람 냄새 나는 생활이 9화에 걸쳐 방영되었다.

05. 마무리

분단영화는 휴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기 영화의 주요 장르가 되어 왔다. 분단영화는 단순히 북한을 소재로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영화에서 북한을 묘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며, 분단영화를 통해 북한을 경험하는 남한 사람들이 체화하는 감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분단영화의 변화 양상은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었다. 냉전 체제가 지속되고 남한의 체제 안정을 중요시하던 1980년대 중반까지는 반공 의식에 기반을 둔 반공영화가 많이 제작되었다. 반공 영화는 북한을 부도덕하고 인민을 괴롭히는 악마로 묘사하여, 수용자들은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를 체화했다.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냉전이 완화되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의 남한 정권은 햇볕정책을 시행했다. 정부는 북한과 적극적인 교류하며 국민 또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기를 원했다. 따라서 이 시기 영화에서는 북한을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묘사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정, 형제애와 같이 서로 신뢰를 쌓는 감정도 함께 제시했다. 2000년대 초반,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 무력 도발로 인해 한반도는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남북 교류의 장이었던 개성공단까지 폐쇄되면서 남북한의 교류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 때의 분단영화는 반공의식을 넣어 맹목적으로 북한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인민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분리해내어 그들

을 가난한 또는 가족을 잃은 불쌍한 존재로 만들고, 이 상황을 자초한 북한 정부를 무책임한 국가로 만들었다. 이 영화를 본 관객은 북한 인민에 연민과 동정을 느낌과 동시에,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우리는 두 차례 남북정상 회담 등으로 인해 이전보다 유해진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방영된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돈주 등의 변화된 북한의 모습, 평화로운 북한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영화는 남북한 사이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넣어 북한을 보다 인간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했다.

영화는 남의 모습을 그려내는 미디어임과 동시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통로이다. 또한 영화는 감독, 작가 혹은 관객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제작되고 수용된다. 따라서 시기별 분단영화는 분단 현실에서 남한과 북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그리고 남한 영화로 북한을 보는 것은 단순히 북한 재현 양상의 변화를 넘어 남한 대북의식의 변화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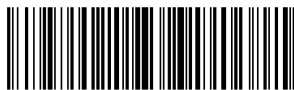
참고문헌

- 국가안보실, 2014,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 강성률, 2018, “2010년 이후 영화의 북한 재현 양상 고찰,” 『씨네포럼』(31): 43-68.
- 변재란, 2001, “남한영화에 나타난 북한에 대한 이해: 쉬리간첩리철진공동경비 구역 JSA를 중심으로,” 『영화연구』(16): 241-276.
- 변창구, 2011, “제 1장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함의,” 『통일전략』 11(2): 9-38.
- 이승현, 2018,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다섯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의정논총』13(1): 163-186.
- 이화준·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대북인식과 분단인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1): 23-45.
- 장연이, 2009, “똥이 장군에 반영된 반공적 이데올로기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109-122.
- 전병길, 2014, 『공동관람구역: 영화로 통일을 읽다』, 서울: 책마루.
- 한주희, 2017,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영화의 역할,”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8(6): 1091-1099.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북한은 가까이 있지만 가볼 수도 없고 우리는 북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다. 뉴스를 포함한 각종 미디어와 탈북민의 경험담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북한의 전부이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시선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매체는 바로 영화이다. 반공 영화의 대표작<뚝이장군>, 같은 인간으로 북한을 묘사한<공동경비구역JSA>, 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간첩의 이야기<의형제>, 사랑 이야기의 배경으로 북한을 그린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을 살펴보자!



ISBN 9788912345678

정가: 14,800원